

로마서 11 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의 운명

저는 1978년에 처음 예수아를 믿은 뒤 로마서 11 장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신약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 때에도 이 계시에 감동을 받았지만, 지금도 그 계시의 깊이에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 장은 하나님의 유대 민족을 향한 부르심과 선택은 2,0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과 미래까지 계속되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무엇보다도 메시아닉 남은 자들 속에서 찾을 것이지, 구원 받지 못한 유대 정치가, 군사, 랍비 혹은 과학자들에게서 찾을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해도 말입니다.

로마서 11 장에서 얻은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저는 성년 이후 제 삶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를 짓고 세우는 데에 헌신했습니다. 이 메시아닉 남은 자들은, 비록 적은 수이지만 (현재 약 1만 5천 명),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계시록 7:4-14에 따르면, 이 공동체가 14만 4천으로 성장할 때, 마지막 환란과 부흥의 최종 단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로마서 11 장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에 대한 세 가지 엄청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들이 실상 다음 세 가지의 열쇠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1. 교회의 회복
2. 이스라엘의 회복
3. 죽은 자의 부활

1. 교회의 회복

전 세계의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것으로 묘사됩니다(17절). 오늘날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은 교회가 접붙여지는 언약적 고리입니다. 허나 교회는 믿음의 문화적 요소에만 접붙여진 것이 아니라,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17절)**”로 접붙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절기를 기념하는 것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절기들에 담겨 있는 예언적 계시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또한 1세기 메시아닉 공동체의 역사적 정황 이상의 의미로, 그 공동체의 부흥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6절).**” 뿌리에 일어나는 일들은 가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가 원래 사도적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성도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뿌리에 “**접붙여졌다**”는 것은 1세기의 그 사도적 공동체와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애초의 사도적 기초로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또 다른 요소는 교회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11 장에 나타난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은 요한 복음 17 장에 예수아께서 연합을 위해 드리신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연합의 두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행 1:14), 두 번째는 혼적인 것입니다(행 4:32). 영의 연합은 기도와 예수아에 대한 믿음, 성경 공부로 말미암습니다.

혼의 연합은 대화와 협력, 그리고 공통의 유산 등 인간적 수준 이상의 것입니다. 최초의 메시아닉 사도적 공동체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의 공통 유산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 모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세계 교회의 연합을 위한 불가결의 고리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 남은 자들은 교회의 이러한 공통 유산을 갖고 있는 유일한 청지기입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연결되고 접붙여져 있으면, 교회는 스스로의 연합을 위한 언약적 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II. 이스라엘의 부흥

로마서 11 장에는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흥에 대한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가 “표어”로 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롬 11:26)”입니다. 매일 점점 더 많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아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공동체들의 사랑과 청렴에 대한 명성이 이스라엘 대중들 가운데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계속 가해지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 메시아닉 공동체의 점진적 성장은 곧 임할 대부흥의 첫 단계입니다. 주부와 군인, 사업가, 학생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매일 삶 속에서 증인으로 살며, 예수아의 빛을 저희 민족 전체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III. 죽은 자의 부활

세 번째 약속은 재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롬 11:15).” 예수아께서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마 23:39)” 외칠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아께서 유대 민족에 대해 언약적으로 헌신하신 바의 선제 조건이며, 유대 민족이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한다는 긍정의 표입니다. 예수아께서는 당신의 백성 없이 초림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신의 백성이 없이는 재림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대 민족 선택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 사도들을 통해 볼 수 있다면, 하물며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선 어떻겠습니까?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롬 11:12).” 가장 충만한 은혜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슈아께서 돌아오실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지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천년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메시아닉 남은 자들의 회복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이 그 충만한 상태로 회복될 때, 예슈아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는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없이 저희끼리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민족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롬 11:25)**” 눈먼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편이 되고, 여러분이 저희 편이 되면, 모든 것이 예언 그대로 이뤄질 것입니다.